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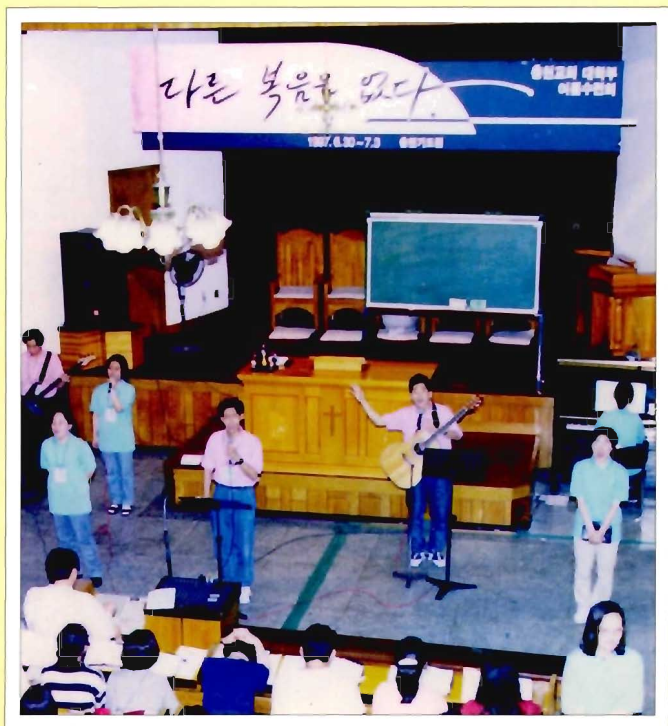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8

1997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예레미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8

1997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예레미야

기도제 목

1.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2.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도록
3. 김창인 목사님과 김성관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7년 8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예레미야 서론

예레미야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자신의 내밀한 감정까지도 숨김없이, 때로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감정까지도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후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던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출신의 젊은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근동 아시아의 절대 강자였던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두 큰 나라 사이에서 갈광질광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될 것이며,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공의로우신 심판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언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운명이 꺼져가는 암울한 시기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재난 너머 장래 하나님의 승리가 지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 본문의 구조

- | | |
|-------------------------|---------------------------|
| 1. 예레미야를 부르심(1장) | 2. 유다에 대한 경고와 교훈(2-35장) |
| 3. 예레미야의 고난과 핍박(36-38장) | 4.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39-45장) |
| 5. 열방에 대한 심판(46-51장) | 6. 역사적 회고(52장) |

1

(금)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

찬송 / 405장 본문 / 렘 1:11-19

『...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1:19)

본문에 나타난 내용적 특성을 보면 첫째, 예레미야 개인의 소명이 단순히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우주적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5,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열방의 심판을 동일한 맥락 속에서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발생케 될 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유다만의 상황이 아니라 주변의 열방, 더 나아가서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야기시키는 전우주적 성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심판의 필연성을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1-16절). 이 두 가지 환상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레미야에 의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첫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인데(11, 12절)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구나무가 한 해에 싹이 트고 열매 맺는 나무 중에서 가장 이른 때에 잎과 꽃을 터뜨려 봄을 알렸던 것과 같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둘째, 끓는 가마의 환상은 유다의 언약 파기, 곧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신 28:15-68)이 참혹한 재앙으로 귀결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유다가 북쪽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된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렘 39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역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응하심을 깨달아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겸손하게 수행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2:2)

본 단락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같이 지난 날을 회고하는 것은 유다의 현재의 죄악상을 지적하기에 앞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전의 헌신을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유다가 처한 배도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2:4,3:5). 본 단락에 드러난 내용의 특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소개합니다(2절). 저자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리게 된 축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특성을 알기 위해 ‘ 시내산 언약 ’을 상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언약은 신부가 자기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를 따라 새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혼인 관계로 규정합니다(호 1-3장). 또한 이 사랑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무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유효하며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절대적인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사랑으로 인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초기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보이고 충성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광야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신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행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좇지 말고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신랑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부족한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앞날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살게 하소서. ② 김창인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3

(주일) 다투시는 하나님

찬송 / 403장 본문 / 렘 2:9-37

? ...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 (2:9)

오 늘 성경은 놀랍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다투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과 다투십니까? 첫째, 영적 배교와 다투십니다. 온갖 복을 향유받은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좇게 되자(13절) 하나님께서는 다투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9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당신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요일 4:7, 8).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영적 배교까지 간과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외의 어떤 대상을 숭배할 때 광염을 발하시며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간음에 빠진 자에게는 그 죄값을 삼사 대에 이르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죄악과 다투십니다. 사회적 죄악은 나와 이웃간의 수평적 관계를 파괴하는 범죄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창 1:26)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 약자와 고아, 과부 등을 학대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살상까지 하는 극악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30절).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출 34:6).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에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소서.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3:9)

만은 사람이 이 땅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물이 오염되어서 먹을 물이 없음을 걱정합니다. 범람하는 쓰레기를 걱정하면서 분리수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땅이 점점 더럽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금 다른 이 땅의 오염 원인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음란과 행악이 땅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김으로 이 땅을 더럽힌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행음하였다고 할 때 행음은 그들의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눈을 들어서 붉은 산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 찬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쳐짐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시 물질만능주의와 권력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으면서 적당히 즐거움으로 인해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데 일조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②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③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3:14)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인데 왜 황무한 땅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향해 부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족속이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며 행음하였다 하여도 그래서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낙토를 떠난 바가 되었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죄악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있는 분이십니다. 노를 한 없이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죄악을 자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배반하였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재물과 세상의 지위를 더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했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중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굳은 마음을 갈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겸손히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굶은 베를 두르고 애곡하라 ...』(4:8)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과 같은 상황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죄한 백성들에게 전쟁이 신속히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용한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다가오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같이, 한번 불면 모든 식물들을 말리는 광야의 바람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바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만 해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막지 않을 정도로 죄악은 깊이 있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심판으로 다가오는 이 전쟁 앞에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이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그같은 문제의 회리바람이 몰려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갑옷으로 무장하기 이전에 배옷을 입어야 합니다. 파이팅을 외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애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우리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애곡할 수 있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 (4:19)

당 신은 만일 우리 민족을 향한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 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련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탈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무지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을 당할 상황에 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눈을 그려 꾸며서 사태를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자구책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선지자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은 민족의 살육당하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면 무감각한 백성들만으로 가득찬 민족이라면 더욱 소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바로 깨어 있는 나팔수가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위원(예배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5:9)

여러분은 세상에 악인들만 모여 사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가 바로 죄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둬지는 반역 속에서 유다는 이미 전국이 죄인들로 득실거리는 커다란 교도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이 유다의 죄를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거짓말을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얼굴을 반석같이 굳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을 몰라서 율법을 알지 못하였고, 글을 아는 지도자들은 고의로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이리와 표범같이 그들을 찢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음행하며 창기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숫말같이 이웃을 돌아다니며 이웃의 아내들을 탐내며 음란한 눈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인해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난 것과 죄지은 것을 회개하고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떠나 죄 속에 빠져 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 보수하지 않겠느냐.” (5:29)

하 하나님께서는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매일 매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새 사냥꾼이 덫을 놓아 새를 잡듯이 사람들을 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함정을 파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통에 수많은 새들을 잡은 새 사냥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쳤습니다. 이런 사기로 인해 그들은 심히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여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과 호소를 친히 값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머리 좋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사기치고, 힘없는 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에서 떠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 너는 훈계를 받으라 ...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 (6:8)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을 쳐서 이 땅은 목자들이 양을 먹일 수 없는 황량한 곳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은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내는 것같이 악을 발하고 있으며, 강포와 탈취와 질병과 창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훈계를 받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훈계를 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시고 땅을 황무케 만들어서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땅을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음란하고 음탕한 일을 하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강 고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분명히 재앙이 임할 것임을 모르고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중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경고하는 영적 과수꾼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7:11)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성전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성전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성전도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10).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도,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 다른 신들을 좇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들의 굴혈로 보이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 실로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블레셋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으며,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일가족을 하루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이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영적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7 ...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 (7:23)

본 문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징벌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본위대로 마음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외치셨으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노아 시대의 멸망,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은 정치적인 불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군사적인 약함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결 같이 영적인 타락이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와 국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봅시다.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비웃고 계시지는 않지요? 형식적으로는 예배에 열심도 있고, 바치는 일에도 허물이 없지만 이미 마음이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 백성은 여호와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8:7)

하 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의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자랑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어기는 자들, 곧 불법과 행악을 일삼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었던 것이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타락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타락한다 하여도 제사장과 선지자들만이라도 바르게 서서 진리를 외친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들추지 않고 함께 죄에 물든 그들은 헛된 말로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쳤습니다. 죄에 눈이 어두운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하여도 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서 있다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 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9:12)

우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육을 당하여 처참하게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슬픈 노래(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8:18-9:6).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선지자는 죄악을 일삼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지언정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토로합니다(9:2). 그만큼 유대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꾀술(거짓과 술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애가를 부르시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지라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 (9:24)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평생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궁구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의 한 평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생의 삶을 복되게 누리기 위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23-24절).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26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육체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이 최선의 선택이요 가장 큰 보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매일 매일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적인 믿음의 표만 자랑하고 마음은 그 믿음에서 멀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소멸시키시고 도덕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10:10)

백 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따른 심판을 경고해 왔던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숭배는 무익한 것입니다(1-5절).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상은 인간에게 화나 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삶 속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6-11절).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계 열방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군왕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입니다(12-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거짓이요 헛것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며 망령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 계시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도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 ▶ 기도 제목 / 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10:21)

본 문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7장-25장).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비탄과 중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은 회개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7, 18절에는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멸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그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예레미야는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23-25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켜 달라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해 달라는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민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7 ...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 (11:11)

예 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선민 이스라엘은 그들의 열조가 범했던 가중한 죄악을 그대로 좇아 다른 신들을 섬기는 등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판결할 때 죄의 대가는 오직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간에 맺은 언약의 핵심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이 당하는 또 다른 결과를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곧 범죄한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기도가 막힌다면,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신앙 행위가 헛것이 됩니다.

15절에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회개치 않는 자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헛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 』 (11:22)

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구하셨습니다. 어떻게 구하십니까?

첫째, 미리 아시고 강력한 손길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실로 다양하고 교활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지만, 이 일을 먼저 아신 하나님의 보호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영원히 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히13:8).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했던 그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쉼 없는 보호하심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의를 실현함으로 보호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은 경각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살해하려는 자들을 공의로운 징벌로써 보울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22, 23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해하려는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며 공의를 실현하는 분입니다. 주님의 품을 신뢰하고 거기 거하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소서. ②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비스바덴교회와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 악한 자의 길이 험통하여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12:1)

예 레미야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우 사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말만 많았을 뿐,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2절).

오늘날에도 참으로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사악한 자들은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불평하여 하나님께 질문합니다(1절).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예레미야가 더욱 심한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며, 가족까지도 예레미야를 속이며 좋은 말로 아첨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6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을 언젠가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7-13절). 많은 이웃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며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그들도 역시 공의로 다루실 것이며,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몰아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민족들을 그분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시 117:1).

▶ 기도 제목 / ① 의로우신 하나님이 번영하는 악인을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으로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13:11)

본 문은 두 가지의 상징 또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말씀합니다. 1-11절에서는 새 허리띠가 썩어 못쓰게 될 때 내버려두는 운명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자만심으로 버림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14절에서는 포도주병의 비유를 통하여 포도주에 만취된 사람이 거동도 사리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제대로 지킬 힘도 없고 자기 편과 적을 분간 못하고 행동하여 함께 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와 반역으로 언약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쓸모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에 적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썩은 허리띠와 가득찬 포도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그분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박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13:15)

예 레미야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파멸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와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15-17절)

특히 왕의 가족에게 개인적인 권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인하여 스스로를 낮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18-19절). 그리고는 마지막 경고로 완고하여 회개치 않는 유대 민족은 마침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20-27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지 못합니까?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좇아 행하며, 그것을 매우 안락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삶 속에 최악의 행실들이 깊이 새겨지게 되면 그 행실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23절). 죄는 순식간에 올라미로 나를 낚아챱니다. 처음에는 죄의식을 느끼지만 잠시 후면 그것마저도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죄에 익숙해져서 그런 식의 삶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자유해야 할 죄는 없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말씀 안에 낮아지게 하셔서 교만함과 최악의 그림자가 지라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하소서. ②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으로 중국인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14:12)

본 문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생긴 비참한 상황이 그림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2-6절).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여 사람들과 짐승들 그리고 자연 환경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언약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면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중보기도합니다(7-9절).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유다 백성의 범죄를 벌하실 것이며(10절),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말라 하시고 백성의 제사도 물리치시며,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11-12절). 거절당한 예레미야는 이제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니(13절), 하나님께서는 보내지도 명하지도 않는 거짓 예언을 말한 선지자들은 기근과 칼로 죽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14-16절). 이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큰 과멸당하게 됨을 인하여 슬퍼하며 탄식하다가(17-18절)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의 범죄를 자복하면서 유다를 버리지 마시고 가뭄의 재난을 거둬 주시기를 또 한 번 기도드립니다(19-22절).

언약을 어긴 유다 백성들의 땅은 황무지와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황폐화된 땅의 모습은 죄로 인해 빚어지는 영적인 공허, 불만, 좌절, 절망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은혜의 보좌 앞에 풀어 놓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적 가뭄에 들지 않도록 사죄의 복을 내려 주시고 이웃과 교회와 이 민족과 북녘땅에도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수단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홀으리라.” (15:4)

본 문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14:19-22)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유다의 사죄를 위해 예레미야는 세 번 거듭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시대와 사사시대의 대표자인 모세와 사무엘이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사랑과 칼과 기근과 포로의 운명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출애굽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가증한 우상을 좇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은망덕한 저들에 대해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았으며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어 깨우치고 또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잠깐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금방 예전의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6절)고 토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 외에는 달리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한, 완전한 용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는 심판이 뒤따르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이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죄악의 자리에 계속 빠져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15:19)

본 문은 예레미야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세 차례의 중보기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가중되는 백성들의 박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예레미야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일을 하던 중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 예레미야처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 위로와 용기를 주심으로 그 말은 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주를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능히 완수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를 기억하사 그가 힘들어 할 때 그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16:21)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하나 더 주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묘사한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 원리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을 자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운 자식이기에 매를 맞듯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심한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말로 참된 신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징계는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프고 괴롭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피하지 말고 숨은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와 구원을 맞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의 날 피난처시여”라는 멋진 신앙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 (17:9)

세 상에는 부패하여 냄새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버린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지독합니다. 그런데 시궁창의 찌꺼기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온갖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거, 꾀방, 시기, 미움 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살살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살피십니다.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거나 은폐된 의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하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14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또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물질,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시며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2 ...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이다 』(17:22)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창조의 섭리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렸습니다(19-23절).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다윗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그곳이 모든 이스라엘의 예배하는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상세한 조항들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만든 억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복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관심한 태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권면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 (18:6)

창 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피조물의 일부분이며, 창조주의 다스리시는 섭리 아래 있음을 잊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기쁘게 해 드리고 그 뜻을 행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권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라도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재앙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라도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으로 끔직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의 길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할나위 없이 큰 은혜임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등 뒤로 한 채, 교회를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의지와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 놓게 하소서. ② 북한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영육의 양식을 풍족히 채워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18:23)

본 문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백성들의 음모와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그를 조롱하고 꺾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해하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거스리지 않는 지도자들만 좋아했습니다(18절).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즉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반감을 가지거나 반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름부어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예레미야는 기근과 전쟁의 칼에서의 죽음, 남편과의 사별 등의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바벨론의 침입을 시사한 것으로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백성을 회개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임박한 심판의 저주를 말함으로써 심판의 처절함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언약의 자녀들은 철저히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를 발하셔서 그들의 행동에 보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예레미야의 경고를 통해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귀기울여 듣고 받아들이며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② 제2 교육관이 하루속히 완공되게 하소서.

“...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원전하게 할 수 ...”(19:11)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반역 때문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마음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 모두에게 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비유의 중인으로 부른 사람들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뜻을 가집니다(2절). 그들은 음모와 술수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렘 18:18). 이러한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아무런 의심없이 말씀을 들을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방황할 때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따라서 똑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실제적인 대상은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바알 신당을 이 땅에 세움으로 이곳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힌놈 골짜기처럼 회복 불능의 상태로 파괴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지병을 깨뜨려 이와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지병은 단단하고 깨어지기에 꼭 알맞은 것입니다. 한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다소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돌아올 선을 지나쳐 버렸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멸망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회개할 때를 놓쳐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때를 맞이하는 일이 꿈에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② 8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9월에도 눈동자 같이 보호하소서.

MEMO

* 8월에는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